

서울시 꼴찌임에도 3년째 의정비 동결 경제난 극복과 고통분담에 '한마음'



중랑구의회는 지난 9월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의정비 동결은 회복되지 않은 서민경제

와 일자리 부족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구의원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

3,678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중랑구의회는 작년 의정비 결정 때에도 서울시 자치구 평균 4,006만원 보다 8.2% 적은 3,678만원을 책정하여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의정비를 책정한 바 있어, 내년 의정비를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구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해 만장일치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게 되었다.

중랑구의회, 우림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

중랑구의회는 지난 9월 9일 우림시장 상인회(회장 유의준)와 '1기관 1시장(市場)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이번 자매결연으로 우림시장 상인회와 상호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매월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림시장 상인회에서 위생적인 식자재와 품질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김수자 의장은 "내수경기 회복 없이는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며,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수방시설 현장점검



중랑구의회는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인 9월 23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수방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망우산 저류조 시설 등 수방시설을 현장점검하였다.

김수자 의장은 "우리 중랑구는 중랑천을 접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항상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며, "앞으로도 폭우와 태풍에 대비한 빈틈없는 수방대책 추진으로 중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제 1 7 1 회 임 시 회 구 정 질 문



신 하 균 의원(면목3동, 망우3동)
▶ 망우3동 기사식당 거리에 개구리주차 허용할 의향은 없는지? 또 이 지역의 주차단속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Q. (신하균 의원) 혜원사거리에서 동원시장까지의 망우3동 기사식당 거리는 도로 폭이 11m이다. 차량을 개구리주차 했을 때 차량 길이가 4.2m임을 감안하면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A. (건설교통국장) 개구리주차는 도로교통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좁아지는 보도 폭과 세차도

구의 보도 점유로 인해 보행인의 통행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구리주차 허용 문제는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신하균 의원) 망우3동 기사식당 거리에 주차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를 피해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A. (건설교통국장) 시간대별 교통량 흐름과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지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 망우3동 기사식당 거리를 특화구역으로 구성해서 이 지역의 상권을 살려볼 의향이 없는지?

Q. (신하균 의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계획안보다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망우3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망우3동에 상권이라고 하면 동원시장부터 혜원사거리까지의 기사식당 거리가 유일하다고 보는데, 이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구성해 상권을 살릴 의향은 없는지?

A. (재정경제국장) 그 지역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고 세차시설도 확보해야 하는 점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빠른 시일 내에 특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